

혁신도시 인근 농어촌에 체류형 복합농원 조성

농어촌 상생협력 추진 세미나 총 사업비 6000억원 책정 1~3개 지역에 시범 시행 계획 후보지로 나주·장성 등 거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앞줄 왼쪽)는 지난 14일 본사에서 열린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농어촌 상생협력 추진방안' 합동세미나에서 '혁신도시-농어촌 상생협력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장성·나주 등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농어촌 지역에 상생협력을 위한 혁신농원이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조성되는 '농어촌 체류형 복합농원'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개최한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농어촌 상생협력 추진방안' 합동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사는 올해로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5년을 맞았지만 이전기관 직원 40%는 여전히 가족과 떨어진 '기러기 가족'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또 인력난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혁신도시와 배후지역이 상생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농어촌공사 내·외부 전문가 209명으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혁신도시-배후지역 상생협력사업' 구상안을 내놓았다.

사업 후보지는 혁신도시에서 반경 6~40km 인접한 나주시, 장성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등지다. 이들 후보지는 지역 특화축제, 수변공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농어촌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기본 방향은 가족친화형 '여가농원'의 형태로 ▲휴양·레저·농촌체험 집약형 '원스톱 서비스' ▲농어촌 일자리 및 수익 창출 ▲농촌 자원 우수 지역 선정 등으로 잡았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혁신도시 배후지역 가운데 공사 부지가 확보된 장성을 예로 들어 상생협력사업 구상안을 소개했다. 장성호 인근 33ha 부지를 '농촌체험농원'(6ha) '체류형 농원'(2ha) '임대형 농원'(19.9ha) '농촌창업센터'(0.3ha)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농원 곳곳에는 농촌 문화 체험장, 로컬푸드 직매장, 가족단위 숙박시설, 청년창업센터, 농기구 대여센터 등 시설이 구비된다. 이 가운데 '임대형 농원'은 10평(33㎡) 규모 필지 1000개를 1년 단위로 유상 분양하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의 영농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의 선진사례로는 독일 '클라인가르텐'과 일본 '시민농원'을 꼽고 국내 사례로는 전북 고창 상하지구를 들었다. '도시 속의 작은 공원'이라는 뜻을 지닌 클라인가르텐은 1864년 시작된 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규모 1시간 이내 1구획당 250~300㎡ 규모 '클라인가르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20년 시작한 일본 시민농원도 도시형·도시근교형·농촌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법률정비를 통해 농지보전과 주택소유 관련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농어촌공사는 '혁신도시-배후지역 상생협력사업'을 5년에 걸쳐 전국 30개 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6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전국 혁신도시의 규모·사업여건을 감안해 1~3개 지역에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정부에 조만간 건의해 국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농어촌 배후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고 사회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져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정부에 조만간 건의해 국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농어촌 배후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고 사회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져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0년 에너지 예산 활용 방안 논의

에너지밸리 정례포럼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들이 내년 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에너지밸리포럼은 19일 오전 광주 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4회 정례포럼'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에는 호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전력, 한전KDN,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2020년 예산안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전 청장은 "내년 에너지분야의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13.9% 증액된 3조 8933억원이 편성됐다"며 "정부가 '국민중심, 경제강국'을 내걸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으며, 이

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예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에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예산(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용자, 발전차액 지원, 핵심기술개발 등) ▲복지 분야(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안전 부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2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경기대응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시스템 반도체·바이오센서·미래차 등 'BIG 3' 산업 집중 투자 등을 꼽았다.

(사)에너지밸리포럼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관련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뉴질랜드 전력기업과 신사업 개발

IkeGPS 그룹과 업무협약 고도화된 배전설비 기반 조성

한전KDN이 뉴질랜드 전력기업과 신사업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19일 한전KDN은 지난 16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IkeGPS 그룹'과 '전력ICT 신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배전 설비 관리 전문솔루션을 활용해 안정적·효율적인 설비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원격측량 등 설비분석 기

술 제공 ▲안정된 솔루션·장비 공급 ▲설비원격측량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질랜드 'IkeGPS 그룹'은 자체 생산한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설비분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매년 7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지속하고 있다.

김장현 한전KDN ICT사업본부장은 "IkeGPS 그룹의 전문 솔루션과 한전KDN의 축적된 기술력을 결합해 고도화된 배전설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전력 신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등 전력공기업 '공공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9일 한전 본사에서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과 공동으로 '제2회 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사진)'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는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와 성공요인에 대해 산업부 산하 기관간 학습 기회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혁신문화 조성 및 역량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이어달리기 형식을 활용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 는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박형덕 한전 기획부사장을 비롯해 공동 개



최기관 4개사를 포함한 41개사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공동 개최 4개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 발표, 혁신 관련 특강, 미래 신기술 전시 및 드론 활용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인 'EN:TER'와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모델인 '1인 가구 안부 살피기 서비스' 등 디지털변환 혁신 사례

를 소개했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신재생 Open Platform'에 대해, 한전KPS는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패러디이스쿨' 사업을, 한전KDN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채용 시스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박형덕 한전 기획부사장은 "에너지·무선·기술 등 혁신성장 핵심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은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 "이 행사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표할 우수한 사례 창출의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PS, 국가품질경영대회 3개부문 수상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부문 등

한전KPS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KPS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고 국가품질명장 배출,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부문 등에 이름을 올렸다.

김범남 한전KPS 사장은 "이번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인정받은 한전KPS의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최상의 고객만족과 합

계 지속기업으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전 기종의 유지보수, 진단·평가 기술 자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해외사업 및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사업 등 신성장사업 다각화와 발전플랜트 운영 및 시공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45회째를 맞은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품질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개선성과가 탁월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